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Column

매력이 넘치는 인천의 길

Interview

<터덜터덜걷기> 홍성훈 원장과의 만남

▶ 지난호 보기

2011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IDI 소식



인발연-한국은행 인천
본부 MOU 조인식 및 경
책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은 한국은행 인천본
부(본부장 이용호)와 지
난 ...

Zoom 人



국내 1호 아나운서 이목
경
우리나라 최초의 아나운
서는 인천여고 출신의 이
목경이다. 이목경의 둘
째 ...

Zoom INcheon



검붉은 개펄에서 천년
의 신화를 맞본다_검
단선사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은 어
찌 보면 생동맞은 곳
에 오목하니 서 있는
부조화입니다...

도시동향



보행자·자전거가 우
선인 도시, 일본 마쯔
야마
마쯔야마는(松山)는
일본 시코쿠(四國) 에
히메현(愛媛縣)의 현
청 소재지...

IDI 연구



보행환경 수준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
구
인천광역시의 보행환
경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인천지표



인천의 보행환경 수준
58.1
인천의 보행환경 수준
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천시민 1,00명을 대
상으로 ...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매력이 넘치는 인천의 길

최강림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강림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

주도의 '올레길'이 인기를 얻으며, 전국 각 도시들은 걸으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자의 길들을 개발하기에 열중이다. 또한 스포츠용품 제조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걷기운동용 신발의 매출 증가에 따른 제품판매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라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겹는다는 것이 그저 이동수단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교통수단이며, 이를 보장하는 보행권 및 보행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차원에서 날로 증대되고 있다. 즉 보행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교통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행과 연계된 매력적인 길들을 통하여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 중 길은 수많은 장소와 다양한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 내의 지점 간을 연결하는 공간이자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그 도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의 첫 단계는 기본적으로 걷기에 편하고 안전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활동을 담는 용도와 아늑한 느낌을 가지고 아름다워야 한다. 궁극적인 단계는 그 길만의 독특함과 다양한 이야기가 묻어나는 매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의 길들은 어떤 수준인가? 불행하게도 기본적인 첫 단계에조차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인 가로경관에 대한 시도는 최근에 들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적절하지 못한 가로시설물, 불법도로점용시설물, 차도와 보도의 무단점용 등으로 인하여 보행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안전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되지 않은 가로변 건물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까지 추가됨으로 인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가 인천시에 재직할 당시 인천시의 주요상업가로를 대상으로 보행환경을 조사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인천시 보행환경의 현황은 안전성, 쾌적성 측면에서 양호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전 가로에 있어서 차량·가로시설물·노상적치물로 인하여 보행공간은 협소하였고, 건축물 간판·노상 불법광고물·가로시설물 및 이들 간의 통합적 디자인의 부재로 인하여 가로미관은 훼손되었으며, 보도상의 차량 통행·보도상태 불량·안전표지판 및 장애인 통행시설 부족과 오용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정비, 관련제도 및 행정의 개선, 주민참여 및 이용자의식에서의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물리적 환경의 정비는 보행활동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보행을 위한 보도의 폭원 확보 및 가로시설물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보행공간내의 각종 가로시설물은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조성되어 가로미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한 이용을 고려한 보도포장·도로 및 가로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관련제도의 신설 및 행정의 개선에 있어서는 보행환경조성과 관련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참여 및 이용자의식은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이를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필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은 시청 앞의 넓은 보행로와 중구청 앞 역사문화거리의 보도를 당연하다는 듯 점유한 불법주차차량과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비상식적인 시민의식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지금까지 ‘건고 싶은 거리’·‘문화의 거리’·‘특화거리 및 특화가로’ 조성사업 등 사랑받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도시재생차원에서 도시에서 유명한 거리 및 대표적인 상업가로 등을 대상으로 가로의 바닥포장·가로시설물·옥외광고물 등을 재정비하고, 차량통행의 제한·루미나리에(Luminarie)등의 매력요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도시도 있으며, 신도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소핑몰로 조성하기도 하였다. 인천의 경우에도 ‘테마가 있는 1군·구 특화가로’ 등 가로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으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봉어뿔에 봉어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문화의 거리에는 문화가 담겨있지 않고, 특화거리에는 그 거리만의 독특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한 거리와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담겨진 생활가로이다. 우리의 추억과 정취와 삶이 담긴 매력적인 골목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다.

도시경쟁력에 있어서 삶이 묻어나는 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길’이란 그 도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길에 대한 느낌들은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인천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위해서 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매력이 넘치는 인천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길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 그 길에 남겨진 시간의 자취 및 이야기를 통하여 그 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여야 한다. 둘째, 길에 장소성이 생기게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고려한 시설 및 공간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삶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길의 미관차원에서 길 양측의 건축물 전면,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시의 길은 사람들의 기억과 활동이 담긴 대표적인 공공장소이므로 안전성과 쾌적성, 공공성과 매력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보행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며, 적합한 용도 및 이야기를 담아서 그 길만의 매력을 지녀야 한다. 매력이 넘치는 길은 억지로 힘들여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가진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혜안을 가지고

우리가 인천의 길들을 가꿀 때, 우리의 인천은 모두에게 살고 싶은 도시로 다가올 것이다.

제주도의 ‘올레길’이 인기를 얻으며, 전국 각 도시들은 걸으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자의 길들을 개발하기에 열중이다. 또한 스포츠용품 제조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걷기운동용 신발의 매출 증가에 따른 제품판매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라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걷는다는 것이 그저 이동수단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온전히 걷기만을 위한 무념무상 걷기 실천이 최선



온전히 걷기만을 위한 無念無想 걷기 실천이 최선

국내뿐 아니라 수시로 지역 사람들로 걷기여행단을 꾸려 네 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비롯해 스페인 산티아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미국 요새미티 국립공원 등 해외 트레킹도 섭렵한 걷기의 전문가이신 홍성훈 원장(인천시 남구 도화1동 홍경형외과 의사)을 만나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홍 원장의 걷기 이력은 30대 초 등산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제주 올레길, 전주 아름다운 순례길, 시흥 늪내길, 강화도 나들길 등 '걷는 길'을 걸으며 순례하며 걷기 운동의 선구자이자 전도사로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걷기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사 [인천in]에서 주최하는 <홍성훈 원장과 함께 터덜터덜 걷기>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또 앞으로 곧 걷게 될 코스는 어디인지 소개해 주세요.

<홍성훈 원장과 함께 터덜터덜 걷기>는 [인천in]에서 신문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했는데, 그 취지나 행사 내용이 좋아서 흔쾌히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번 약 35명여가량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3분의 1 정도는 새로 참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이 13번째 걷기 행사고, 7월 10일에는 무의도를 걷습니다.

예전에는 지리산, 설악산 등을 40~50번씩 등반할 정도로 등산을 즐겨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특정 산을 여러 번 오르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산들을 수차례 등반했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계절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산은 다들 한 40~50번씩 등반했습니다.

등반을 꼭 해오시다가 최근에는 <걷기 운동의 선구자>, <걷기 운동의 전도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등산에서 걷기 운동으로 전환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들고, 체력이 달리기 때문이지요. 같은 산을 수십 번 오를 만큼 산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평지를 걷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서 부평까지 또는 강서구에서 서울시청까지 걸어서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걷기를 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요령이라도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하시려고 합니까?

무념무상의 상태로 걷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즐기면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특별히 걷는 방법이나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못 걷게 되는 순간까지 터덜터덜 걷기를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이신데요, 그렇다면 걷기가 의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운동보다 유리한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 스스로도 몸소 체험해서 걷기가 어느 운동보다 좋다는 것을 느꼈고, 무릎이 몹시 아픈 환자가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코스를 걷고 와서는 아주 건강해지고 아픈 곳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은 일시적인 치료만 해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는 못합니다. 걷기를 생활화하면 다른 어떤 치료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허리가 안 좋거나 디스크 환자에게는 특히나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 곳으로 보도 여행을 다니셨는데 개인적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올레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남쪽 해안가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은 대부분이 평지여서 등산에 자신 없는 사람도 걷기가 수월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 푸른 들판과 계곡 등을 만날 수 있어 경치만 놓고 보면 그 유명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곳으로 전주의 <아름다운 둘레길>도 좋습니다. 여기는 전주의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 단체가 자기들이 가진 종교 시설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데 1박과 아침, 저녁 2식을 제공하고 1만5천원만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기도 하고, 종교 간에 화합하는 모습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루에 30km씩 6일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걷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걷기를 하기에 좋은 곳도 주중에 있는 사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산들은 높고 험한 곳이라도 케이블카 등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 예로 중국 황산이 험준하기로 유명하지만 케이블카 등을 타고 올라가서 한 3~4시간 능선을 따라 걸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제주 올레길>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자체들마다 각종 걷기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강화 나들길>을 이미 개발했고, 다시 <인천 녹지축 둘레길>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동구에서 <남동 문화생태 누리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특별한 걷기코스를 만드는 것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주변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내 길은 매연이 많아서 자주 걷지 않습니다만, 주변의 보행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으로 출근을 할 때 무거운 물건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대체로 걸어 출근합니다. 걷다보면 보행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 도시들처럼 공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자주 나가지만 대부분 숙소에서 5~10분만 걸어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따로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 주변에 공원이 많으니 걷기를 하기에 좋지요. 공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히 걷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천의 도로 정책은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도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도 계속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광화문 같은 경우는 지하도가 있어도 지상으로 걸을 수 있게 조성을 해놓았는데, 인천은 답동의 경우도 그렇고 부평역 광장 부근도 그렇고 지하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길을 건널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보행권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요즘은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산이나 특별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서 일상에서 걷는 것이 편하고 즐겁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좋게 하는 정책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러 다니는 서민들이 드문 만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걷기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걷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둘레길 코스를 만든다면 시흥의 <늪내길>을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늪내길>은 현재 네 개 코스로 거리도 가깝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서 걷기 좋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혹시 걷다가 힘들면 바로 버스를 탈 수도 있어 좋습니다. 또 숲길이 많아서 그야말로 터질터릴 걷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기록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나호 보기**

2011년 7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발연-한국은행 인천본부 MOU 조인식 및 정책간담회 개최

■ 인발연-한국은행 인천본부 MOU 조인식 및 정책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한국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이용호)와 지난 6월 2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조인식은, 양 기관의 공동 연구·조사활동과 인원교류 및 자료·정보 교류 등 제반영역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양 기관은 "인천시 및 산하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원기 기획본부장과 허동훈 정책연구실장이 해당 주제에 대한 안전설명을 통해 현황을 정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주요이슈와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이날 이용호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제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있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현장의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인천광역시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협력을 체계화한다면,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배 원장은, "인천광역시 재정 및 경제 부문 지역현안에 대한 양 기관의 연구교류를 보다 본격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상호 보완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번 MOU조인식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한 정보·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연구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연구 - 외부제안 160건 중 110건 올해 하반기 연구수행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연구과제의 발굴과 수행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군구 및 시민단체, 공사·공단 등 총 19개 기관 및 단체를 방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연구과제를 제안 받은바 있다. 원장이 직접 발로 뛰어 함께 발굴해낸 시정현안은 총 160건.

제안 받은 연구과제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과제수행방식도 다양화해, 기존방식인 기본연구과제·기획연구과제·정책연구과제·수탁연구과제 이외에, 현안보고서·현안연구사업·Task Force결과보고서·외부공모 등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2011년 하반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통상 6개월 이상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는 기본연구과제 26건, ②3~6개월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제시하는 기획연구과제 28건, ③단기간 정책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문보고서 형식의 현안보고서 23건, ④현안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잘 꿰뚫고 있는 연구주체의 제안자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거나 외부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수행되는 현안연구사업 7건, ⑤여러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Task Force결과보고서 2건, ⑥연구주체의 성격 상 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구성과를 획득하는 외부공모 14건 등이다.

우리 연구원은 담당 연구자 선정 및 주제별 통합·연계 과정과 연구과제선정심의회 등을 거쳐, 제안된 시정현안 160건 중 약 68%에 해당하는 110건을 100건의 연구과제를 통해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시정현안을 지역의 각계각층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려는 우리 연구원의 노력이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요구된다.

■ 서구 세어도 현장사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4월, 서구청과의 시정현안 간담회를 통해, 2011년 하반기 기본과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섬 지역 관광영향 관리방안: 세어도를 중심으로(연구책임: 심진범 연구위원)"을 수행할 예정에 있다. 이에 관광도시계획·환경·물류·교통 등 관련 연구자들로 사찰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8일 세어도로 현장사찰을 다녀왔다. 한편, 세어도는 원창동에 있는 면적 0.408km², 해안선 4.2km 규모의 섬으로, 경인항 부근에 위치해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한 해안 친수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관광자원이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한국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이용호)와 지난 6월 2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조인식은, 양 기관의 공동 연구·조사활동과 인원교류 및 자료·정보 교류 등 제반영역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국내 1호 아나운서 이

국내 1호 아나운서 이옥경

도시기반연구부 석종수 연구위원

우리나라 최초의 아나운서는 인천여고 출신의 이옥경이다.

이옥경의 둘째 딸인 패션 디자이너 노라 노씨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옥경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전신인 경성방송이 1926년 7월 시험 방송을 하던 시절부터 1928년까지 약 2년간 방송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디자이너인 노라 노(본명 노명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옥경은 1901년 9월 7일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선비이자 벼슬을 하던 이학인(李學仁)의 무남독녀로 서울에서 태어났다.(일부 자료에서는 인천에서 태어났다고도 한다.) 이옥경의 아버지인 이학인은 구한말 과거에 급제를 하였으면서도 천주교인이 되어 천주교 신부로부터 영어를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 벼슬을 하면서 마지막 황태자의 영어 교사를 하기도 했으며, 나중에 이옥경이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인 교장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때 미국인 교장이



그림 1. 노창성과 이옥경의 현역시절 사진

그의 영어 문장을 칭찬할 정도로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옥경이 태어 난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 이학인이 인천 세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옥경은 인천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 이 땅에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기 직전 이학인은 부인과 세 살 된 이옥경을 데리고 만주 안동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옥경은 그곳에서 소학교를 다녔다. 후에 이옥경의 남편이 되는 노창성은 이 학교의 2년 선배였다. 편비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공부를 하던 노창성이 뒷날 다시 이옥경을 찾아가 부부가 된다.

이옥경은 만주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일본 규슈 벳부에 있는 미션 스쿨로 진학한다. 그러다 이옥경이 벳부에서 학교에 다니던 16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옥경은 학업을 중단하고 어머니가 있는 인천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일본인만 다니는 학교였던 인천고녀(인천여구의 전신) 앞에서 한 달여 동안이나 교장 선생을 만나 데 달린 끝에 어렵게 입학 승인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이옥경은 인천여고 재학 중 늘 일등을 했고 학기말이 되면 졸업식에 지게꾼을 데리고 가야 할 정도로 많은 상품을 받았다고 한다. 이옥경은 공부뿐만 아니라 명문에 명필이었으며, 마라톤 선수, 테니스 선수,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 등으로 활약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옥경이 노래를 잘했다고 하고 일본의 음악학교를 다녔다고 하지만, 그의 딸 노라 노의 회고에서는 이옥경이 노래만 빼고 모든 분야에서 특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옥경이 인천여고를 졸업하던 해의 일본의 한 신문에서는 이옥경을 '꽃 중의 꽃'이라고 대서특필했다고 한다.

인천여고를 졸업하고 도쿄의과대학 유학을 생각하고 있던 이옥경에게 뜻 밖에도 경성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옆집의 일본인 학생이 청혼을 했다. 일본인이 한국인과 결혼 하는 것을 금기시 하던 일제 강점기와 남자의 집안에서 절대 반대하고 나섰지만 그 학생은 속병이 나 휴학을 하는 지경에 이르자 양가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한다. 그러나 이때 이옥경의 소학교 선배로 일본 구라마에 공업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노창성이 이옥경을 찾아오게 된다. 이옥경이 만주의 소학교 교지에 쓴 글과 주소를 보고 노창성이 이옥경을 찾아 인천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사연을 이야기 하고 청혼을 하게 되니 이옥경의 집에서도 이 조선인 청년과 결혼을 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약혼 직전까지 이르렀던 일본인 학생이 뒤로 물러 설 수밖에 없었다. 노라 노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 일본인 학생은 후에 노창성을 찾아봐 "당신은 조선인이고 나는 일본인이니 우리의 싸움은 시작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당신이 '리상'을 불행하게 한다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해방 직전 노창성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 청년(마쓰오가 박사)이 큰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하니 재미있는 인연이다. 1924년 초 일본은 우리나라에 사는 일본인들을 위해 서울에 방송국을 세우기로 했다. 당시 노창성은 총독부 편비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총독부 체신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 선배이자 직장 선배가 되는 시노하라씨의 추천으로 조선에 방송국을 설립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됐다. 그 해 11월에는

이 옥 경

시험방송이 준비돼 체신국 안에서 보도진들과 관리들이 모여 시험방송을 했다. 그리고 12월 9일 드디어 일반인들이 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시험방송을 하게 됐다. 당시에는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없었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남자 직원들이 돌아가며 아나운서 역할을 했었다. 노창성은 여성 목소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사람을 구했으나 일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성이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노창성은 부인인 이옥경을 적임자로 보고 이옥경에게 아나운서를 제안했던 것이다. 드디어 1927년 2월 16일 1시부터 개국식이 열렸다. 개국 사회는 경성일보에서 온 방송 주임 '마쓰나가' 라는 일본인과 이옥경이 번갈아서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이옥경은 이 땅에서 처음 정규 방송을 하는 날 첫 전파를 내보내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방송시간은 매일 밤 2시간 30분이었다. 사람들은 사람 목소리가 공중에서 날아온다며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특히 부드러운 여성의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정동 방송국으로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새로이 아나운서라는 여성 직업이 탄생했고 당시로는 가장 인기 직업으로 꼽혔었다. 방송은 두 시간 반 아나운서 교체 없이 계속 되었고, 일제 강점기인데다가 방송 청취자가 대부분 일본인인 관계로 일어와 조선어 두 가지로 방송을 하게 됐다. 당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일이 재정제도였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재미있으면 청취자가 전화나 그 밖의 수단으로 재청을 요구해 온다. 방송국에서는 그럴 때마다 큰 성공으로 여기며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즉석에서 다시 방송을 하곤 했다. 물론 그 동안 10분쯤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사였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영업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방송국으로서는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라디오를 팔고 청취료를 걷던 일이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나운서 이옥경은 3남 6녀를 둔 어머니로 살다가 1982년 5월 1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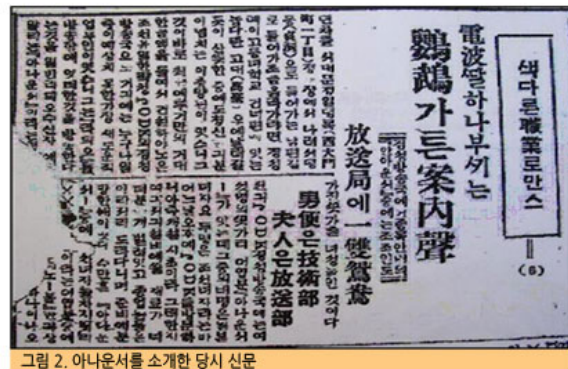


그림 2. 아나운서를 소개한 당시 신문

출처 : 춘하추동방송 홈페이지(<http://blog.daum.net/jc21th/17780048>)

조선일보 홈페이지



그림 3. 이옥경을 소개한 동아일보 1982년 4월 15일자

우리나라 최초의 아나운서는 인천여고 출신의 이옥경이다. 이옥경의 둘째 딸인 패션 디자이너 노라 노씨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옥경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전신인 경성방송이 1926년 7월 시험 방송을 하던 시절부터 1928년까지 약 2년간 방송을 했다고 한다.

검붉은 개펄에서 천년의 신화를 맞본다_검단선사박물관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쨍쨍한 땀벌, 땀벌.

푹하면 차르르 깨지며 와르르 무너질 듯 한 탱탱한 푸른 눈망울이
그득한 하늘과 뭉게구름.

여지없이 바다가 제격인 여름,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늘 그렇듯.

‘춥습니다. 올 겨울은 104년만의 추위라고 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청량산 길을 오르던 것이 불과
5개월 전입니다. 산꼭대기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었던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은 지난
3월이었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입체
교차로, 박물관’을 거니는 여정도 이제 반을
넘어섰습니다. 길동무로 치자면 이쯤 되면

무렵 없을 만도 해졌나요? 시인 김선우는 ‘나이 드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저마다의 예쁜 구석이 잘 보여서 좋고, 자신을 적당히 몰아붙이니 크게 배신을 당할 일도
실연할 일도 없을 터이니까 봅니다. 제가 비를 맞고 에어컨을 피하는 건, 내리는 비는 맞아야
하고 더운 날에는 땀을 흘리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라 생각함이지요. 제 철 음식이 맛나고,
철이 들어 숙성한 농염이 빛나듯, 이것도 세상사 철이 드는 게 아닐까 하네요.



검단선사박물관은 어찌 보면 생뚱맞은 곳에
오뎅하니 서 있는 부조화입니다. 상가와
아파트의 무리에 어울릴 수 있는 건 어떤
박물관일까? 박물관 이름을 내세우며
패션이나 명품 가방같은 욕망과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하는 게 솔직함이 아닐까 싶지만요.
하지만 검단 그 자리는 불과 개발되기 10여 년
전까지 자연 상태의 구릉이었다니 원래 그 자리

주인의 제 격은 돌도끼와 움집이 맞습니다. 인천, 서울, 김포를 잇는 삼각축 선상에 입지한
검단(黔丹). 이름 그대로 거기는 검고 붉은 자채였지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기
전에는 개펄이었다지요. 칙칙한 개펄판에 붉은 노을이 어우러지는 모양이 홍학(紅鶴)의
날개와 같다하여 검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복사열로 후끈 달아오르던 7월의 한 낮. 박물관에는
유치원생들로 가득 붐비고 있었지요. 1층 상설전시실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별로 원당, 검단,
불로, 동양동에서 나온 대표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2전시실은 청동기 시대의 집터 유적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지요. 2층은 선사 문화와 발굴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마련 된 공간으로써
색다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요. 선사시대의
갈돌과 돌판으로 범씨를 갈아보고 활비비를 사용하여

불을 피워보며, 요새는 하기 힘든 이색 체험을 하게 되니, 아이들에게는 특히 유익한 교육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한 쪽 벽면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있는 아동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고인돌 특별전도 눈길이 안
갈 수 없을 겁니다. 고인돌은 그 시대의 건축술과 문명을 상징한다고 하겠지요. 돌을 세우고
흙으로 버팀축을 쌓는 과정을 보면 그 시절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지혜에 아하! 하지
않을까요?



놓을 수 없지요.



알고 계시죠? 세계 고인들의 반 이상이 한국에 있고, 강화고인돌은 고창, 화순의 고인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기념 스탬프도 찍고 체험 활동을 하고 나면, 꽃과 풀이 잘 어우러진 하늘공원이 있는 옥상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의자에 앉아 청정한 여름 하늘을 단 몇 분이라도 올려다보는 게 어떨지요. 그때 부터였던가요? 도시에서 더 이상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우리들의 최고 시아는 고층빌딩 꼭대기에 머물러 있지요. 박물관을 나와 뒤편 공원에서 원당동 청동기시대 돌널무덤을 둘러보는 것으로 선사박물관 관람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도 쓸쓸한 재미일 겁니다.

집으로 가는 건, 맛있는 직선 도로도 있지만, 근동 논과 밭을 옆에 끼고 언덕을 올라가는 구부렁 옛길도 있습니다. 그 길, 그 개펄에서 우리 부모들은 여름 어스름녘, 검붉은 노을로 노동의 피로를 덜어내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대로 마음이 붉게 차오르지 않았을까. 이효석이 그려낸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진 봉평의 언덕길을 오버랩하고픈 욕심이 새록새록 합니다. 검붉은 개펄에 하얀 메밀이 노을은 하늘 이루는 파스텔조의 한 폭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름나기 잘 하시길.

관람기념

스탬프를

글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사진 석종수(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신선주(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인턴 연구원)



식객 맛집, 면발 종결자
권오길 손국수

권오길
손국수

여영만 원작의 만화 <식객>에 소개된 60년 전통의 국수집, 권오길 손국수가 감단선사박물관 인근, 불로동에 있다. 위약 요점은 방송타는 식당들이 많아서 방송 매체가 아닌 <식객>에 소개됐다는 것이 더욱 신성하게 다가왔고, 호기심을 자극했다. 권오길 손국수는 바로 만들어 즉석에서 끓여 먹는 생국수 전문점을 표방하듯 메뉴는 칼국수(서원이, 얼큰이 두종류), 비빔국수, 감자말이국수(냉/온) 세 가지로, 오로지 국수로만 승부하는 식당이다. 면의 종류도 그날그날 다르다. 쫄, 메밀, 감자, 녹자, 호박, 백련조면 등이 오늘의 웰빙국수로 제공되는 것.

식당에 들어서면, 딱 봐도 한눈에 <저 분이 실제 모델이구나> 싶은, 만화 캐릭터와 100% 싱크로율에 빛나는 권오길 사장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부친이 손틀 기계로 뽑은 국수를 먹고 자란 권오길 사장이 2대째 가업을 이어 받았는데, 그 시절의 국수맛을 재현하고자 재래식 기계를 사용, 화학첨가제 없이 자연 건조법으로 국수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건물 삼층이 국수공장이다. 국수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일일이 손님들 테이블을 돌며 국수 맛과 조리법을 알력지는 세심함도 만조스럽고, 식객 만화가 붙어있는 식당에서, 만화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주인공과 조우하는 기분이라 더욱 반갑다.





다양한 맛을 즐기자. 시원이 칼국수(2인분 이상, 6000원)와 비빔국수(4500원), 김치말이국수(4500원)를 주문했다. 시원이 칼국수는 오늘의 웰빙면인 감자면이 섞인 면과 함께 육수가 나오는데, 보다 맛있게 끓이는 법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특이한 것은 각 테이블마다 모래시계가 놓여 있는 것. 토끼를 덮고 끓이다가 국물이 끓어 넘치면 면을 넣고, 불지 않게 잘 저어준 후 이 모래시계를 얹어 놓는다. 그리고 모래가 다 떨어졌을 때 불을 줄이고, 1분 후에 불을 끄면 면이 가장 맛있게 익는다는 설명이다. 국물이 끓어오를 때 위로 떠오르는 것은 새우가루다. 시키는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맛을 보았다. 광고 카피 그대로 <국물이 끝내줘>란 말이 절로 나온다. 시원이 칼국수답게 노타라버섯, 호박, 오징어, 미더덕 등에서 우려낸 국물 맛이 개운하고, 면발은 정말 쫄깃하고 탱탱하다. 직접 뽑아 만든 수제면답게 어느 칼국수집 면발과는 확연하게 비교되는 훌륭한 식감을 자랑한다. 칼국수에는 김치 맛도 중요한데, 곁절이 같은 느낌이지만 적당히 익은데다 적당히 칼칼해서 자꾸만 당기는 맛이다. 그리고 비빔국수는 새콤달콤한 양념장 맛이 매력적이라 젓가락 가기 바쁘고, 김치말이국수는 얼음가루 송송 올려진 차가운 자태 그대로 시원하고 깨끗한 맛에 국물까지 남김없이 흡입하게 되며 면발 역시 탱글탱글하다. 몸에 좋은 웰빙면은 판매도 하고 오전 11시~오후 9:30까지의 영업시간을 준수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면발 종결자다운 전통의 국수맛과 착한 가격 때문에 식사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각종 방송에도 소개된 대표 맛집인만큼 탱탱한 웰빙면에 시원한 국물이 끝내주는 국수 한그릇으로 푸더운 여름날, 찌는 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려자.

*주소 : 인천 서구 불로동 319-1

*연락처 : 0505-542-7542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검단선사박물관은 어찌 보면 생동맞은 곳에 오뚝하니 서 있는 부조화입니다. 상가와 아파트의 무리에 어울릴 수 있는 건 어떤 박물관일까? 박물관 이름을 내세우며 패션이나 명품가방같은 욕망과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하는 게 솔직함이 아닐까 싶지만요. 하지만 검단 그 자리는 불과 개발되기 10여 년 전까지 자연 상태의 구름이었다니 원래 그 자리 주인의 제격은 돌도끼와 움집이 맞습니다. 인천, 서울, 김포를 있는 삼각축 선상에 입지한 검단(黔丹). 이름 그대로 거기는 검고 붉은 자체였지요.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보행자·자전거가 우선인 도시, 일본 마쓰야마

도시기반연구부 송금영 초빙연구원



1. 마쓰야마의 개요

마쓰야마(松山)는 일본 시코쿠(四國) 에히메현(愛媛縣)의 현청 소재지로 시코쿠 지방 제1의 도시다. 일본의 국립공원인 세토나йка이[瀬戸内海]에 면하여, 17세기 초 이래 지방 영주(領主)의 성읍(城邑)으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유·소다·직물 등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농촌과 어촌을 중심으로 번영해 시코쿠지방의 주요기관들이 모여있다. 마쓰야마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일컬어지는 도고(道後) 온천과 일본 3대 연립식 평산성의 하나인 마쓰야마성이 있어 연간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다.



마쓰야마성



도고온천

마쓰야마성은 1602년(게icho 7년) 가토 요시아키가 축성했으며, 전쟁 또는 화재로 불타버린 망루 등을 전부 목조로 복원하여 축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천수각에서 바라보는 마쓰야마 시내의 모습이 장관이다. 일본 온천 가운데 최고의 온천 역사를 지닌 도고 온천 본관은 도고온천의 상징이다. 목조 삼층 누각건물인 본관은 1894년에 지어진 이래, 수많은 온천객들이 다녀갔으며 1994년에 온천 시설로는 일본 최초로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유구한 시간속에서 역사를 거듭해온 온천의 전당은 즐기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온천은 물론 휴게실 이용과 시설 견학등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그 자체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도고온천 본관은 “날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 풍경 100선” 중의 하나다. 마쓰야마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서 마쓰야마로 가는 직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비행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2. 마쓰야마의 보행환경 정비

마쓰야마에는 반조우·야사카지구(番町・八坂地区)를 비롯하여 도로지구(道後地区), 미즈하마지구(三津浜地区) 등 3개의 생활도로존(くらしのみちゾーン)이 지정되어 있다.

생활도로존 사업은 보행자와 사람이 우선이 되는 생활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교통기능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주민들의 담소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가 되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본 전역에 50개의 생활도로존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마쓰야마에만 3개가 지정되어 있다.

마쓰야마에서는 보행자·자전거가 우선인 길 만들기, 쾌적한 자전거 주행 공간 확보, 거리의 활력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로를 정비하였다. 사업의 주체는 마쓰야마시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2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전거도로 정비, 전선 지중화, 아케이드 철거, 칼라 포장 등이다. 생활도로존 조성을 위해 현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현지 주민 등으로 조직된 마을 만들기 추진회를 만들어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생활도로존 사업으로 보행자를 비롯하여 자전거·휠체어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

마쓰야마는(松山)는 일본 시코쿠(四國) 에히메현(愛媛縣)의 현청 소재지로 시코쿠 지방 제1의 도시다. 일본의 국립공원인 세토나йка이[瀬戸内海]에 면하여, 17세기 초 이래 지방 영주(領主)의 성읍(城邑)으로 발전하였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보행환경 수준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Assessment Models for the Pedestrian Environment Level

연구의 개요

- 인천광역시시의 보행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인천시 주요 도로의 보행환경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평가함
- 주요 내용은 보행환경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보행환경과 관련된 이론 연구, 현장 조사를 통한 물리적 특성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 분석, 보행환경 수준 평가 방법 개발, 보행환경 수준 평가 기법의 적용 등임
- 이 연구에서 개발된 보행환경 수준 평가 모형으로 산출된 각 도로의 보행환경 수준 평가 지수는 보도의 정비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각 도로 간의 정비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연구의 주요 내용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평가

- 보도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보행을 할 때 불편한 점으로 「보도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와 「좁은 보도 폭」이 많이 지적됨
-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58.2점으로 보행환경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
-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대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직업별 만족도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와 다른 직업군과 차이가 있음
- 평상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라도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통행 목적에 따라라도 보행환경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쇼핑 목적으로 걷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안전성 측면에서는 건물에 진출입하는 차량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 가장 만족도가 낮고 주행 차량과 충돌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편리성 측면에서는 보도 경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보도 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연결성 측면에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인한 단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횡단보도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환경성 측면에서는 보도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휴식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보행환경 수준 평가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로용량편람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행자 도로의 서비스 수준 평가 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행환경과 관련된 각종 평가 요소들에 상대적인 중요도를 적용하여 통합된 보행환경 평가 지수를 구함
- 평가 요소들의 중요도는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도 만족도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계층 분석법(AHP)을 사용했으며, 보행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 요소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요소 중 인천광역시의 보도 환경, 현장 조사 자료 취득의 현실성, 보행자 만족도 조사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보행환경 수준을 평가하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된 결과 전체적으로는 안전성(0.344), 편리성(0.292), 연결성(0.183), 환경성(0.183)의 순서로 중요성이 높음
- 각 평가 요소들은 서로 다른 척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척도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우며, 각 평가 요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을 설정함
- 연도의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행환경 구성 요소들의 중요도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특화가로의



3지역으로 구분하여 보행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함

- 주거지역에서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모형으로 각 도로의 보행환경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보행자들이 부여한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보행자 만족도와 모형 값 간의 상관계수는 0.726으로 상관이 높은 편임
- 상업지역에서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모형으로 각 도로의 보행환경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보행자들이 부여한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보행자 만족도와 모형 값 간의 상관계수는 0.761로 상관이 높은 편임
- 특화가로에서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모형으로 각 도로의 보행환경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보행자들이 부여한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보행자 만족도와 모형 값 간의 상관계수는 0.871로 상관이 매우 높은 편임

모형의 활용성

- 이 연구에서 구축된 보행환경 수준 평가 모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의 보행환경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보도 이용자들은 보도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는 보도의 각종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차량 진출입구를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함
- 보도의 편리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천광역시의 보행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인천시 주요 도로의 보행환경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주요 내용은 보행환경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보행환경과 관련된 이론 연구, 현장 조사를 통한 물리적 특성 분석, 설문 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 분석, 보행환경 수준 평가 방법 개발, 보행환경 수준 평가 기법의 적용 등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보행환경 수준

인천의 보행환경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의 정성적 평가가 적용된 <보행환경 수준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100점이 만점이고, 평가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보행자들이 보행환경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인천시 주요 가로의 보행환경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이 60.2점으로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며, 주거지역 평균이 60.0점, 상업지역 평균이 58.1점, 보행자전용도로 등 특화된 가로의 평균이 62.4점으로 평가되었다.

인천시의 보행환경 수준 평균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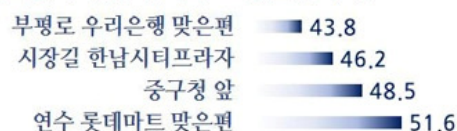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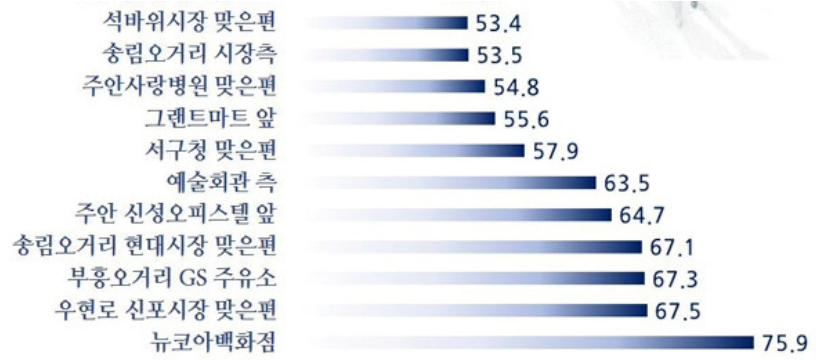
주거지역 중에서는 원인재역 시영아파트 쪽 보행환경이 76.6점으로 가장 높으며, 동수역 부일여중 맞은편 보행환경이 51.2점으로 가장 낮다. 상업지역에서는 구월동 뉴코아백화점 부근 보행환경이 75.9점으로 가장 높고, 부평로 우리은행 부근 보행환경이 가장 낮다.

인천시 주거지역의 보행환경 수준



인천시 상업지역의 보행환경 수준





인천의 보행환경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천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의 정성적 평가가 적용된 <보행환경 수준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100점이 만점이고, 평가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보행자들이 보행환경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